

# 늘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 전담기관이 없다

###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 토론회 스쿨존 관리 등 지자체·경찰 ‘혼선’ 시에 1명뿐...전문인력 부족도 문제

광주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전담하는 주관 기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어린이 안전대책은 크게 각 지자체와 경찰청, 교육청 등이 각각 수립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기관들은 현장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교육청이 주관하고 지자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광주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이하 협업팀)은 광주시청 3층 협업회의실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관계기관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월 구성된 협업팀에는 광주시와 5개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호남본부,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등 11개 기관, 실무자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처음으로 각 기관 교통안전 관련 부서장과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광주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사례와 함께 안전대책 추진 경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했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1년 2213건, 2012년 2546건, 2013년 2568건, 2014년 2825건, 2015년 2848건, 2016년 2951건 등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총 2만1442명이며 사망자는 13명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1일

평균 1.4건, 부상자는 3.4명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만 6명이었으며 이중 4명이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들은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고예방 대책 수립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스쿨존 지정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학교장이 광주시에서 지정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는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시설 관리도 지자체가 전담하며 제한속도 등 규제심의를 경찰이 한다. 또 시설물 중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 불법주차단속카메라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상황으로 정작 당사자인 교육청은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이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안전 전문인력 부재를 호소했다. 현재 전담인력은 광주시 소속 1명뿐이며 각 지자체에는 전무하다.

어린이 안전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월 북구 우치동의 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도로를 뛰어서 건너다 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갯사·시설 확충을 통해 저연령층 대상 교통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업팀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어린이표준모델을 4월부터 확대 보급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동영상 공모전(5~7월), 양심운전자 찾기 캠페인(7~12월), 사고 예방 민·관 평가시스템 구축(7~12월), 위반행위 집중단속(8~9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18세 참정권 실현 및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6·13 지방선거 광주광역시 및 교육감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 발족 12일 광주시 동구 YMCA무진관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광주시장 및 교육감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 발족 식에서 참석자들이 발족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폐수 무단 방출 등 하남산단 6개 업체 적발

광주전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거나 고장난 유독 물질 처리시설을 방치한 하남산단 입주 업체들이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광주 하남산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업체에서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 별로는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련 4건, 폐기물 관리 관련 3건이다.

고무제품 제조사인 A업체는 강알칼리성의 폐수

를 사업장 내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에서는 A업체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B업체는 자동차 부품 등을 도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방지시설의 관이 구멍이 났지만 보수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C업체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유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희기자 kimyh@

### 장흥경찰, 특정후보 지지 무작위 전화 2명 조사

장흥경찰은 6·13 지방선거 특정 정당 도의원 예비후보자 경선 여론조사에서 ‘모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전남 한 지역 도의원 예비후보 C씨의 사무실에서 지역민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C씨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전화를 걸었을 뿐 불법인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전화 통화 기록과 횡수 등 내용 등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또 이들이 C씨의 지시를 받고 이같은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대법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하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사업비용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힘들다는 통신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에 비춰볼 때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4    달몰림 04:36  
해질림 19:03    달일출 16:11

**구름 낀 주말**  
구름이 많다가 오후 차차 흐려지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흐림	9/19	보성	흐림	7/16
목포	흐림	9/17	순천	흐림	8/18
여수	흐림	11/16	영광	흐림	7/18
나주	흐림	7/18	진도	흐림	9/16
완도	흐림	10/16	진주	흐림	7/19
구례	흐림	6/19	군산	흐림	6/18
강진	흐림	8/16	남원	흐림	5/19
해남	흐림	8/16	흑산도	흐림	8/14
장성	흐림	7/18			

◇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0.5~2.0
	면바다	북동~동	0.5~1.5	동~남동	1.5~3.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0.5~2.0
	면바다(동)	북동~동	0.5~1.5	동~남동	1.5~3.0
	면바다(서)	북동~동	1.0~2.0	동~남동	2.0~4.0

◇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간	시간
목포	05:40	00:06
	18:20	12:38
여수	01:18	07:49
	13:51	19:55

◇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14(토)	☀	12/17
15(일)	☀	7/14
16(월)	☀	6/20
17(화)	☀	8/19
18(수)	☀	9/20
19(목)	☀	10/22
20(금)	☀	11/23

◇ 생활지수

- 높음: ☀
- 보통: ☁
- 보통: 👤
- 보통: 👤

**13만 유은 동문의 힘!**  
하나된 유은, 함께하는 동문!

**2018 유은 동문 제22회 한마음 대축제**

일시 2018. 4. 22 (일) 오전 10시  
장소 광주여상고 운동장  
주최 학교법인 유은학원 총동문회 (광주상고, 광주여상, 동성고, 동성중, 동성여중)  
주관 광상37회·여상25회 동창회

www.dongmuni.com / 062)361-2680  
광주상고 광주여상 동성고 동성중 동성여중